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총력

순창군, 추진단 구성해 계획 수립·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해 협력체계 등 강화

순창군은 지난 25일 백신 접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유관기관도 참여해 백신접종에 차질없도록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순창군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을 위해 추진단을 꾸리고, 세부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남섭 부군수를 단장으로 시행총괄, 행정지원, 백신수급 및 접종운영팀, 이상반응관리팀 등을 구성하여 백신접종에 대응한다. 군은 지난 25일 백신 접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유관기관도 참여해 백신접종에 차질없도록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순창군의사회, 간호사회, 순창소방서, 순창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도 구성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분기별 예방접종대상자의 큰 틀이 결정된 가운데 순창군도 이에 대응해 접종계획 마련과 초저온 냉동고 구입 등 세부계획 마련에도 몰두하고 있다.

정 청장은 브리핑에서 ▲1분기는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와 성인 등 ▲4분기는 미 접종자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올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형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발표에 따라 1분기에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확실시되고 있어, 군은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국내 공급업체와의 사전 교감을 이어가며, 냉동고 보급에 차질없이 대응해나가고 있다. 군은 국비 보조금으로 냉동고를 구입할 예정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즉시 백신냉동고 구입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1분기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며, 순창요양병원은 자체 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발 맞춰 백신 확보와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올 9월까지 전 군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여 집단면역 형성으로 지역사회가 안정화될 때까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사이다 상담소' 운영

고충민원 조기 해결 등 위해 시 홈페이지서 상담 접수

남원시가 진상민원 해결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 '사이다 상담소'를 운영한다.

사이다 상담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위원은 시민소통실장, 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 인권위원장, 변호사로 구성됐다.

시에 따르면, 사이다 상담소는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거나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접수 전 시간적 여유와 냉철한 상담을(생각이나 판단 따위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하며 사리에 밝게) 통해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충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불필요한 민원접수를 줄여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내·외부 고객인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민원접수 전 조정으로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재, 화해를 유도하고 대내외 고객을 만족시켜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이번 상담소를 운영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시민소통,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다 상담소' 코너에 상담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상담 결과를 신속히 상담신청인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처리결과가 통보할 예정이며, 면담, 방문, 전화 등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다만, 민·형사상 사건,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사항은 상담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담실 전화(063-620-6980)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식 부시장은 "시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시민과 공무원간의 믿음과 신뢰 확보로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시 만들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추진

순창군이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국가검진을 통해 5대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이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올해 1월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료가 10만원 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중 년간 최대 200만원씩 3년간 연속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인 폐암도 같은 근거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선정기준 없이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속으로 최대 3년까지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만 18세까지 모든 암의 종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원 이외 암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 군수의 이번 챌린지 동참은 한미연 임실녹색어머니연합회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심 군수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심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남구 김병내 구청장과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 임순여객자동차(주) 서인순 대표를 지목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에 '얼굴 없는 기부 천사' 선한 영향력 확산

임실한돈협회·임실연합중기·섬진강다슬기마을, 성금품 기탁

새해 초 임실군에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가정에 써달라"며 거액을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난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삼계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기부자는 임실군 관내 저소득가구, 특히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을 위해 3억7,08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임실군에는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임실한돈협회(회장 김성두)는 "멀리에서도 임실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지역민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느냐"며 돼지고기 1톤을 기탁했다.

앞선 25일에도 임실연합중기(회장 최성호) 임원들은 "회원 70여 명의 뜻"이라며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오는 5일에는 섬진강다슬기마을(대표 최기술)이 쌀 20kg짜리 20포를 노인과 아동·장애인 시설에 전달하는 기탁식이 예정돼 있다.

군은 이 같은 기부 릴레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양질 국산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나선다

남원시가 2021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분야에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양질의 국산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가축의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원 중 국비 8억원, 지방비 21억원, 기타 10억원을 투자해, 조사료전용 수확장비 및 수확제조비 지원에 25억원, 종자 및 기자재 지원에 10억원, 조사료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등에 4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료작물인 조사료의 재배 및 수확, 이용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수질 개선 추진

남원시는 1,000톤/일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63개소, 중계펌프장 51개소에 대해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탁관리 업체는 하수처리분야 전문 업체 하수처리에 등록된 기술인력 확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운영인력의 전문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문기술력을 현장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전점검 계획 수립, 수시 점검 등으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처리시설 유입량 및 유입수질 특성 조사, 수질변동에 대비한 사전조치 및 계절별 수질상황에 따른 매뉴얼 마련으로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전문업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음으로써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작물 한파 피해 최소화 총력

남원시가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시설하우스 농작물(감자, 상추, 딸기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자, 상추,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작물 46ha정도가 피해를 입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감자로(28ha정도) 특히 금지면, 송동면에 31ha정도 한파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남원시는 이례적인 한파 피해를 대비해 농가들에게 온풍기, 수막, 미리 물대기 등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농작물 관리요령과 농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권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일까지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피해면적이 확정되면 조기에 재난지원금을 지원, 농업경영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